

19. 사간공파(司諫公派)

사의 思義, 9세, 사간공파 중시조, 대사간(大司諫), 판관(判官)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玄覃胤현담윤 大將軍門下侍 郎平章事 문하시랑평장사 延山君연산군 諡 景憲公 경헌공 고려 의종, 명종대	德秀덕수 兵部尙書 병부상서 星山府院君 성산부원군 고려명종	仁 烈 인렬 文科 문과	禹圭우규 圭簿주부	찬瓚	응화應和	백원伯元	1 佑仁우인 進士진사	思敬사경 濟州牧使	齊州牧使公派제주목사공파					
							2 佑禮우례	思義사의 大司諫 대사간	1 孟仁맹인 大司憲 대사헌	2 중인仲仁 통정대부 通政大夫				
							3 佑智우지	思恭사공	3 계인季仁 문평시령 文平市令					

신역 [조선왕조실록](#) > 신역 [태종실록](#) > [태종 12년 임진](#) > [11월 28일](#) >
태종 12년 임진(1412) 11월 28일(기유) 양력 1412-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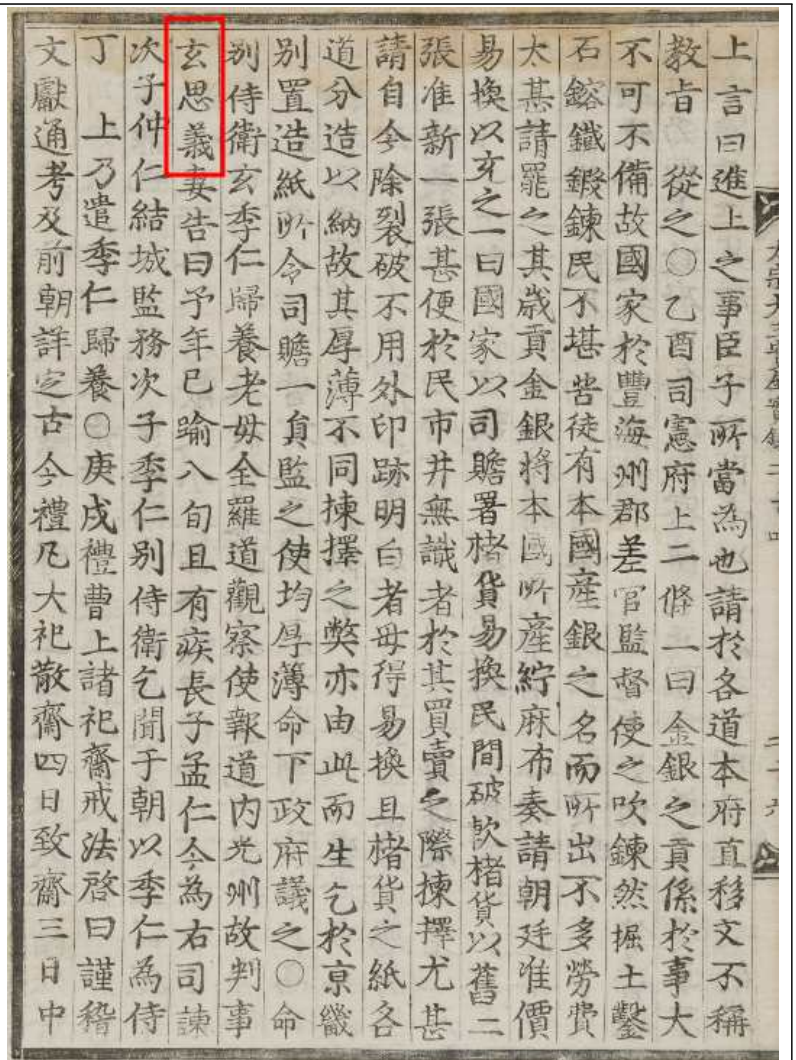
12-11-28[02] 별시위 현계인에게 명하여 고향에 돌아가 노모를 봉양하게 하다

전라도 관찰사가 보고하기를,
"도내(道內) 광주(光州)에 사는 고(故) 판사(判事) **현사의(玄思義)**의 처가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습니다. '저는 여든 살이 넘은 데다가 병까지 들었습니다. 큰아들 **현맹인(玄孟仁)**은 지금 우사간(右司諫)이고, 둘째 아들 **현중인(玄仲仁)**은 결성 감무(結城監務)이며, 셋째 아들 **현계인**은 별시위입니다. 바라건대, 조정에 보고하여 현계인을 시정(侍丁)으로 삼도록 해 주소서.'" 하니, 주상이 이에 현계인을 고향에 보내 노모를 봉양하게 한 것이다.

【원전】 1 집 655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군사-중앙군(中央軍)

○命別侍衛玄季仁歸養老母。全羅道觀察使報："道內光州故判事玄思義妻告曰：'予年已踰八旬，且有疾。長子孟仁，今爲右司諫，次子仲仁，結城監務，次子季仁，別侍衛。乞聞于朝，以季仁爲侍丁。'"上乃遣季仁歸養。



맹인 孟仁, 10세, 전라도수군도만호(全羅道水軍都萬戶) 사간원좌사간, 판안동대도호부사 판관(判官) 현사의(玄思義)의 아들이다. 1383년(우왕 9년)에 성균 진사시에 합격하고, 1400년(정종 2년) 삼군도사(三軍都事)가 되고, 1402년(태종 2년) 장령(掌令)을 거쳐, 경기좌도안렴사(京畿左道按廉使)가 되었다. 1405년(태종 5년) 다시 장령이 되고, 1408년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가 되었다. 1409년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에 이어 1412년 우사간대부, 사간(司諫), 1413년 우사간대부, 사간원좌사간이 되었다. 1414년 사헌부의 천거에 의해 전라도수군도만호(全羅道水軍都萬戶)가 되었고, 1424년(세종 6년) 판안동대도호부사(判安東大都護府事)가 되었다.

[고려문과] 우왕(禡王) 9년(1383) 계해(癸亥) 계해방(癸亥榜) 동진사(同進士) 17위(27/3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등과록전편(登科錄前編)』 卷之二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4650-10])
[미적사항] · 전발인원 33명 [乙3·丙7·同進23] · 관직 사간(司諫)	
[가족사항] [부(父)] · 성명 : 현사의(玄思義) [補] (주2) [조부(祖父)] · 성명 : 현○○(玄○○) [증조부(曾祖父)] · 성명 : 현○○(玄○○) [안향(薦行)] · 제(弟) : 현종인(玄仲仁) · 제(弟) : 현계인(玄季仁) [補] (주3)	
[주 1] 본관 : 네이버백과사전을 참고하여 본관을 천녕(川寧)으로 추가, 천녕현씨의 시조임. [주 2] 부 : 『대종실록』 24권, 태종 12년(1412) 11월 28일 기사를 참고하여 부를 추가. [주 3] 안향 : 『대종실록』 24권, 태종 12년(1412) 11월 28일 기사를 참고하여 안향을 추가. [출전] 『등과록전편(登科錄前編)』 卷之二(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4650-10])	
본관을 천녕(川寧)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오기(誤記)로 보임	

조선왕조실록 > 정종실록 > 정종 2년 경진 > 9월 19일 > 정종 2년 경진(1400) 9월 19일(경진)	
02-09-19[06] 삼군부의 도사 현맹인과 무공들이 국학 생원들을 구타하였으나, 헌사에서도 탄핵하지 않다	
삼군 도사(三軍都事) 현맹인(玄孟仁)이 국학(國學) 생원(生員)을 구타하였다. 현맹인이 장차 강무당(講武堂)에서 독(蠲)에 제사지내려 하니, 무공(武工)들이 명륜당(明倫堂)에서 자고자 하였다. 생원(生員)들이 말하기를,	○三軍都事玄孟仁, 歐國學生員。 孟仁將祭蠲於講武堂, 武工等欲宿明倫堂, 生員等以爲: "非武工所處", 欲黜之, 武工反唇相詰, 至以拳歐生員。 生員等具告於孟仁, 孟仁以爲: "武工於祭, 不可闕者。" 反以生員宋殷, 脫冠投地, 嗾武工結縛, 歐而曳之。 兼大司成李詹、大司成趙庸等, 坐視不愧。 三館諸儒, 具其本末,

“무공이 거처하는 곳이 아니다.”

하여 내쫓으려 하니, 무공이 입을 삐죽거리며 서로 힐난하여 생원을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하였다. 생원들이 현맹인에게 갖추 고하니, 현맹인이 말하기를,

“무공은 제사에 없을 수 없는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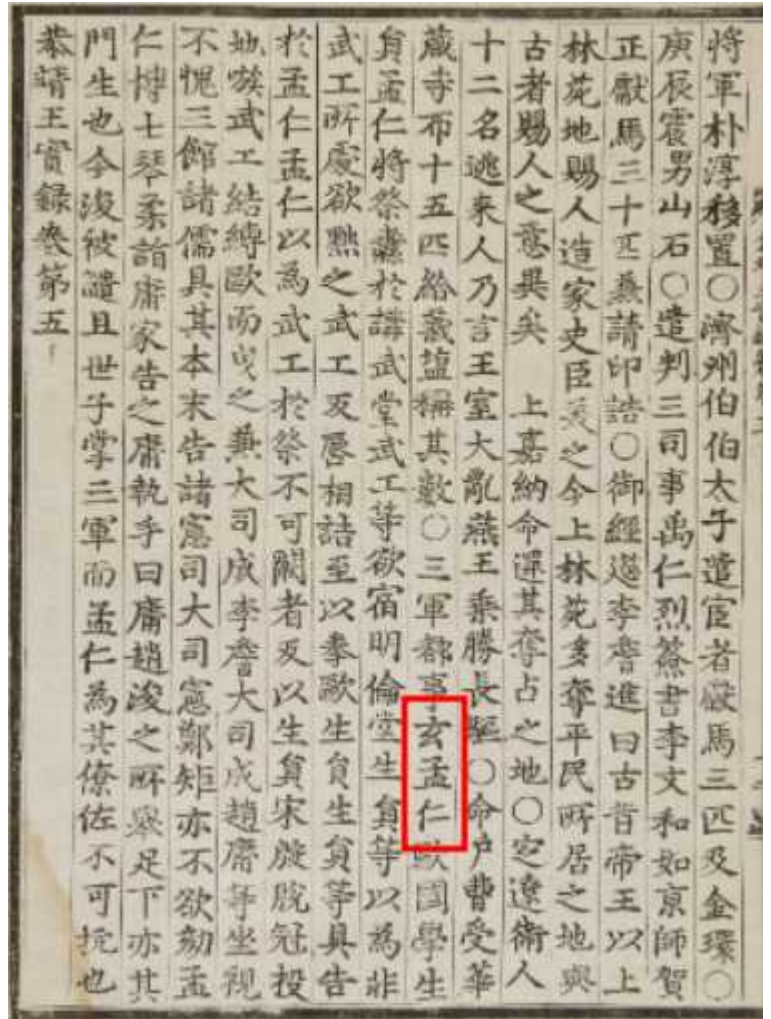
하고, 도리어 생원 송은(宋殷)을 갓을 벗겨서 땅에 집어 던지고, 무공을 사주(使囑)하여 송은을 결박하여 때리고 질질 끌었다. 겸대사성(兼大司成) 이첨(李詹)과 대사성(大司成) 조용(趙庸) 등이 앉아서 보기만 하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삼관(三館)의 여러 유생(儒生)이 그 본말(本末)을 갖추어 헌사(憲司)에 고하니, 대사헌 정구(鄭矩)가 역시 현맹인을 탄핵하려 하지 않았다. 박사(博士) 금유(琴柔)가 조용의 집에 가서 고하니, 조용이 손을 잡고 말하였다.

“조용은 조준(趙浚)이 천거한 사람이고, 족하(足下)도 또한 그 문생(門生)입니다. 지금 조준이 견책을 당하고, 또 세자가 삼군(三軍)을 맡았는데, 현맹인은 그 요좌(僚佐)가 되니,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원전】 1 집 183 면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교육-인문교육(人文教育) / 왕실-국왕(國王)

告諸憲司，大司憲鄭矩，亦不欲劾孟仁。博士琴柔詣庸家告之，庸執手曰：“庸，趙浚之所舉，足下亦其門生也。今浚被譴，且世子掌三軍，而孟仁爲其僚佐，不可抗也。”



조선왕조실록 > 태종실록 > 태종 2년 임오 > 2월 15일 > 최종정보

태종 2년 임오(1402) 2월 15일(무진)

2-02-15[02] 대사헌 이지를 기롱한 감찰 노상신 등을 파직시키다. 이지가 사직하다

사헌부 대사헌 이지(李至)는 사직(辭職)하게 하고, 감찰 노상신(盧尙信) 등은 파직(罷職)시켰다. 처음에 이지(李至)가 본부(本府)에 앉아 있었는데, 감찰 방주(監察房主) 노상신(盧尙信)과 유사(有司) 전경(全卿)·이안직(李安直) 등이 신감찰(新監察)로 하여금 노래하고 춤추며 익살을 부리게 하여 온갖 추태를 부리지 아니함이 없었다. 이지가 서리(書吏)를 시켜 노상신에게 말하기를,

“감찰이란 무공(武工)도 아니며 악공(樂工)도 아닌데 어찌 이같이 하시오? 신구귀(新舊鬼)란 법은 비록 옛부터 그러하다 하더라도 일찍이 판금법(判禁法)이 있었으니 법을 집행하는 관리로서 먼저 스스로 법을 무

○司憲府大司憲李至辭職。罷監察盧尙信等職。初，至坐本府，監察房主盧尙信、有司全卿·李安直等，使新監察歌舞戲謔，凡諸醜態，無所不爲。至使書吏言於尙信曰：“監察非武工樂工，何其如此乎！新舊鬼之法，雖自古然，曾有判禁。執法之官，先自毀法可乎？”至曾經糾正，名在先生案，尙信等怒，句抹至名。當罷官時諷之曰：“本房乃武工樂工之房也。”欲於後坐不迎。監察吳傳漏其議於至，至上書具言其故而乞辭，上命掌令玄孟仁，問尙信等毀法慢長之罪以聞。孟仁等上疏以爲：“尙信等不顧己非，反欺憲長，恣行不法。請收職牒，竄于遠方。”上只罷其職。

너뜨림이 옳겠소?”

하였다. 이지가 일찍이 규정(糾正)을 지내어 이름이 선생안(先生案)에 있었는데, 노상신 등이 노하여 이지의 이름을 말살하고, 퇴근할 때 그를 풍자하여 말하기를,

“본방(本房)은 무공·악공의 방이다.”

하고, 뒤에 앉아 맞이하지 아니하려고 하였다. 감찰 오부(吳傳)가 그 의논을 이지에게 누설하니, 이지가 상소하여 그 연고를 갖추어 말하고 사직할 것을 청하였다. 임금이 장령(掌令) **현맹인(玄孟仁)**에게 명하여, “노상신 등이 법을 무너뜨리고 장관(長官)을 업신여긴 죄를 물어서 아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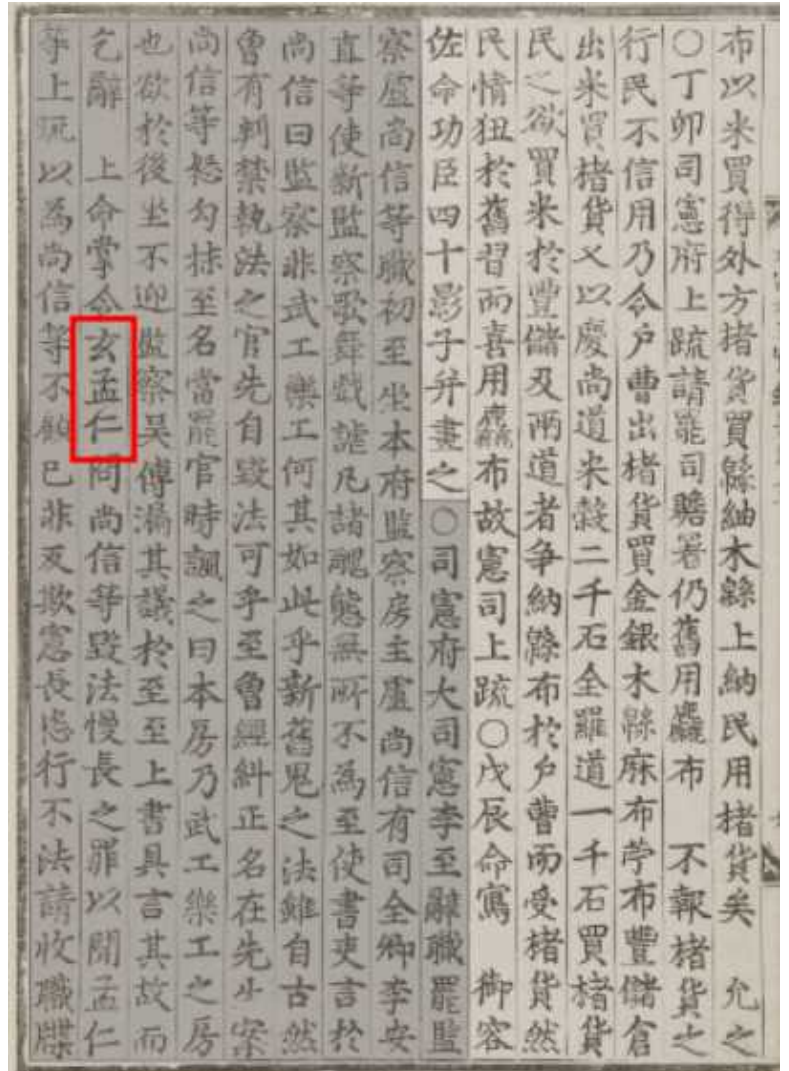
하니, **현맹인** 등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노상신 등이 자기 죄는 돌보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헌부의 장관을 기만하고 불법(不法)을 자행하오니, 그 직첩(職牒)을 거두시고 먼 곳으로 귀양보내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그 직(職)만 파면시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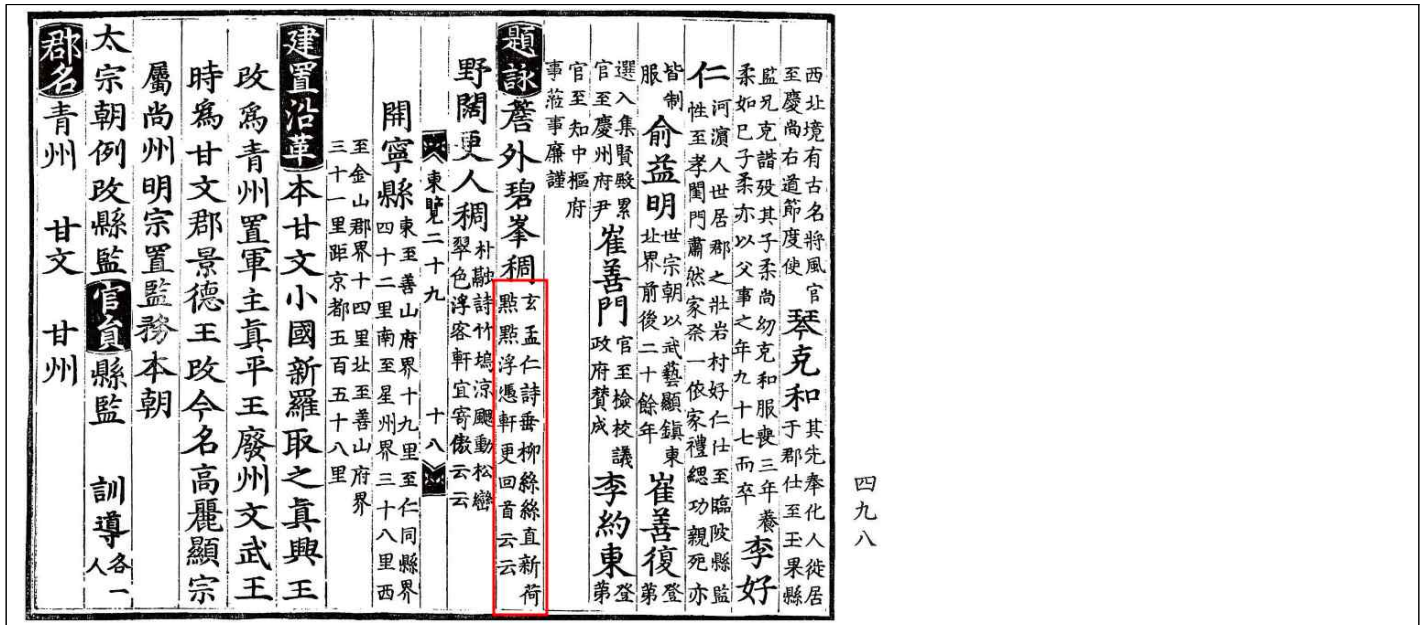
【원전】 1 집 226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고전번역서 > [신증동국여지승람](#) >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9권](#) > 경상도 > 최종정보

【제영】 첨외벽봉조(簷外碧峯稠) **현맹인(玄孟仁)**의 시에, “수양버들은 실실이 늘어지고, 갇힌 연꽃은 점점이 떠 있는데, 난간에 의지하여 다시 고개를 돌리니, 처마 밖에는 푸른 봉우리가 뻗뻗하구나.” 하였다. 야활갱인조(野闊更人稠) 박용(朴融)의 시에, “대숲에 서늘한 바람이 일고, 술발에 푸른빛이 떠도니, 객사의 난간은 의지하여 놀기 알맞는데, 들은 넓고 사람은 뻗뻗하구나.” 하였다.



참고문헌

『정종실록(定宗實錄)』/『태종실록(太宗實錄)』/『국조방목(國朝榜目)』

상호 相鎬, 30세, 자 재호(在鎬), 1934년생, 경찰공무원, 광주종친회장, 대종회 부회장

형순 炯淳, 27세, 1936년생, 자연보호 인천협의회 부회장, 대종회 이사

근섭 謹涉, 27세, 1952년생, 고흥종친회장, 대종회 이사

민두 敏斗, 28세, 1947년생, 남해종친회장, 대종회 이사

수길 洙吉, 28세, 자 병길(柄吉), 1967년생, 포스뱅크코리아 대표, 대종회 이사

미경 美京, 28세, 1967년생, 공인중개사, 대종회 이사

병섭 柄燮, 28세, 1970년생, 대종회 이사

성권 星權, 30세, 자 재권(在權), 1949년생, 전남녹색환경기술 사무국장, 대종회 이사

임종 任鍾, 30세, 자 규임(圭任), 1949년생, 구례종친회장, 대종회 이사

준현 俊鉉, 30세, 자 재홍(在紅), 1948년생, 태광교역 대표, 대종회 이사

용근 鎔根, 31세, 자 근용(根鎔), 1945년생, 구례종친회장, 대종회 이사